

(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 & Fox, 1995). 그러나 학자들은 아동의 정서표현성 외에 정서성, 정서적 반응성, 정서적 분위기, 정서적 예민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정서성(emotionality)은 정서적 표현뿐 아니라 정서적 경험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Kochanska, 200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겉으로 관찰될 수 있는 정서적 행동 반응만을 고려하였으므로 정서표현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기능적 측면에서 아동의 정서표현성은 아동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타인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의사소통 유발인자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후 발달 단계에서 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아기와 유아기의 부정적 정서성은 아동기의 사회적 위축이나 외현적 문제행동(Eisenberg, Valiente, Spinrad, Cumberland, Liew, Reiser, Zhou, & Losoya, 2009)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즉, 아동의 정서표현성은 이후 사회정서 능력의 지표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정서표현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몇 가지 측면에서 불일치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 연구는 다음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첫째, ‘정서표현성은 변하지 않는 안정된 속성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것이다. 더 많은 학자들(Goldsmith, Lemery, Buss, & Campos, 1999; Rothbart, & Bates, 1998)이 정서표현성의 안정성과 변화가능성을 모두 인식하면서도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정적 정서표현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연령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7세 동안 화나 슬픔을 표현하는 유형은 지속성이 있으며(Durbin, Hayden, Klein, & Olino, 2007), 정서적으로 위축된 영아의 상당한 수가 유아기에도 위축된 정서표현

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agan, Reznick, & Snidman, 1987). 이러한 안정성은 타고난 신경 생리학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높은 불안 수준을 가진 아동들은 코티졸 수준과 EEG활동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뇌의 좌반구의 EEG가 정적 정서표현성의 뚜렷한 특징을 보인 영아는 사교적 기질을 나타내었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정서적 특성이 지속되었다(Fox, Henderson, Rubin, Calkins, & Schmidt, 2001).

그러나 일련의 연구들은 정서표현성의 변화하는 측면을 뚜렷이 보여준다. Belsky와 동료들(Belsky, Fish, & Isabella, 1991; Fish, Stifter, & Belsky, 1991)은 생후 1년 이하의 영아들을 종단적으로 연구하였다. 처음에는 부적 정서성이 높았다가 이후 낮아진 아동들과 지속적으로 부적 정서성이 높았던 집단을 비교하여 어머니의 민감성과 반응성이 아동의 정서표현성을 변화시키는 요인임을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처음엔 부적 정서성이 낮았다가 이후 높아진 아동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어머니들의 민감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불일치하는 결과들은 정서표현성의 몇 가지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측정 연령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다. 기질적인 정서표현성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일차적으로 결정되지만 인지능력과 자아개념이 발달하면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같이 발달하게 된다(Murphy, Eisenberg, Fabes, Shepard, & Guthrie, 1999). 예를 들어, 연령이 증가하면서 떼쓰기나 공격성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은 정서조절 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다. Izard와 Malatesta(1987)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강한 울음이나 화 같이 아주 순수한 부적 정서가 줄어드는 반면, 복잡한 표정이 혼합된 부적 정서표현이 증가한다고 하여 부적 정서가 적응적 행동으로 변화한다

는 것을 지적하였다.

한편, 연령의 증가는 사회화 과정을 수반한다. 기질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성인기의 성격으로 확립되는 것처럼 아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표현 양식을 학습하게 된다(Saarni, 1985). 즉, 영아기 보다는 유아기에, 유아기 보다는 아동기에 점차 사회에서 수용되는 표현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다. Guerin과 Gottfried(1994)는 정적 정서표현성이 만 5세 정도까지 변화하다가 학령기에는 안정적인 형태를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생의 초기동안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정서표현성을 확립해 나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측정 연령에 대한 문제는 측정 기간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대부분의 연구는 4세 이하 영·유아기의 정서표현성을 3-6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측정하고 있다. 생의 초기에 발달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는 하지만 너무 짧은 간격을 두고 측정하는 것과 너무 긴 간격을 두고 측정하는 것 간에는 정서표현성의 안정성에 대해 다른 결과를 얻을 것이 쉽게 예상된다.

다음으로 정서표현성의 안정성에 대해 불일치하는 결과들은 정서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Fish 등(1991)은 대부분의 기질연구가 부정적 정서에 더 주목해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강한 울음이나 화를 내는 것이 부모와의 애착형성이나 이후 사회적 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적 정서뿐 아니라 지나치게 강도가 높은 정적 정서표현성 역시 낮은 사회적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Sallquist, Eisenberg, Zhou, Liew, & Eggum, 2009). 부정적 정서와 정적 정서는 동기나 생리학적 반응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안정성에 대한 유형도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영아기에서 유아기까지 강도가 줄어들기도 하며 그 이후 안정적이다가 청소년 초기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앞서 지적한 대로 정적 정서표현성은 유아기동안 증가하다 학령기에 안정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이처럼 정서표현성의 안정성은 정서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불일치하는 결과들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측정 도구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 Infant Behavior Questionnaire(IBQ)나 Child Behavior Questionnaire(CBQ)같은 설문지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아동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나 교사가 보고한다는 측면에서 신뢰할 만한 도구이다. 하지만 Durbin 등 (2007)은 자기보고식 측정법은 수렴 및 예측 타당도가 적고 부모가 교사보다 기질을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하는 편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편향이 있는 경우 아동의 정서는 해석하는 부모의 편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정서의 해석에 대한 측면이 중요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첫 번째 이슈에 이어 두 번째 이슈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정서표현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일차적인 경로는 정서적 행동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이다 (Eisenberg, Fabes, Bernzweig, Karbon, Poulin, & Hanish, 1993). 즉, 정서표현성이 높은 유전자를 가진 어머니가 아동에게도 높은 유전형질을 전해줄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정서적 환경을 구성하는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정서적 환경은 모델링의 기회와 직접적 정서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아동은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정서를 언제 어떻

게 표현해야 할지 학습한다(Cervantes, & Callanan, 1998; 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이러한 모델링은 유전된 정서성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기질적으로 지나치게 다르거나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선호가 적을 경우에는 모델링을 통한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직접적 정서경험은 아동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아동이 슬픔을 표현했을 때 어머니가 수용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우와 짜증을 내는 경우는 큰 차이가 있다. 어머니 자신의 정서표현성은 아동이 어머니에게 어떤 정서를 표현할 때 일정한 반응 유형을 만들어냄으로써 전체적인 정서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다(Eisenberg et al., 1998; Zeman, & Shipman, 1996). 특히 아동의 정서표현성과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성격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머니가 제공하는 정서적 경험 또한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적인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경로를 거친다는 견해가 많다. 우울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Feng 등(Feng, Shaw, Skuban, & Lane, 2007)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높은 부적 정서표현성을 가지고 있었으나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아동의 정서표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아동에 대한 어머니들의 반응이 아동의 정서표현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덜 엄격한 훈육 스타일을 가진 어머니의 아동들은 아동기에 부적 정서표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모델링이나 정서적 반응을 통해 직접적으로 그리고 통제적 양육행동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아동의 정서표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2년에 걸친 종단연구를 통해 정서표현성의 안정성과 어머니가 아동의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1차년도 아동의 정서표현성과 2차년도 아동의 정서표현성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1차년도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2차년도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1차년도와 2차년도 어머니의 정적 정서표현성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아동의 정적 정서표현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4. 1차년도와 2차년도 어머니의 부적 정서표현성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아동의 부적 정서표현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5.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부적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부적 정서표현성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1과 2는 정서표현성의 안정성에 관한 것으로 아동과 어머니 모두에서 정서표현성이 종단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 속성인지 알아보려 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3과 4는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로 나누어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종단적, 횡단적으로 아동의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하였다. 연구문제 5는 어머니의 부적 정서표현성이 통제적 양육행동을 거쳐 간접적으로도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 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더 고려하고 있다. 우선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몇 개월이 아닌 일년 간격으로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Guerin과 Gottfried(1994)는 정적 정서표현성이 만5세 이후 안정적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5세와 6세의 측정을 통해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부적 정서와 정적 정서를 모두 고려하여 정서의 특성에 따른 표현의 안정성을 다루려 하였다. 셋째, 무엇보다 잘 통제된 관찰 상황에서 정서표현성을 관찰하여 맥락적 타당성과 자기보고에서 오는 단점을 피한 측면이 있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년에 걸쳐 수행된 아동발달 종단연구에 참여한 아동 62명(남아38, 여아24)과 그 어머니였다. 이 아동들은 서울에 소재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으며 만 5세에 1차 연구에 참여하였다. 또한 만 6세에 실시된 2차 연구에 다시 참여한 아동 65명 중 과제를 마치지 못한 경우와 수행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지연된 3명의 자료를 제외하였다.

1차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아동의 평균 월령은 68.68개월($SD=63$)이었으며 남아의 월령은 68.58개월($SD=3.95$), 여아의 월령은 68.83개월($SD=3.13$)이었고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어머니들은 대부분 30대였다. 이 아동들은 중산층 양부모 가정의 아동들로 인지-언어적 문제가 없는 아동들이었다.

절차

관찰실 세팅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모자 상호작용을 다양한 상황에서 관찰한 연구이며 관찰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차년도. 한 유치원의 빈 교실을 안막 커튼으로 나누어 실험 공간과 연구자 사용 공간을 분리하였다. 실험 공간 가운데 카펫과 장난감을 배치하여

놀이 상황을 구성하고 구석에 어머니가 앉아있을 의자와 책상을 놓았다. 안막에 작은 구멍을 뚫고 카메라 3대를 설치하여 아동이 연구자를 볼 수 없도록 하였다. 마이크를 천정에 설치하고 아동과 어머니의 행동을 비디오와 오디오로 동시 녹화하였다.

2차년도. 관찰실은 1차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1차년도에 사용했던 교실에서 같은 방식으로 공간을 분리하였다. 바닥에 자유놀이 상황을 구성하고 1차년도에 사용했던 장난감을 대부분 그대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2차년도에는 장난감 뒤에 아동과 어머니가 마주앉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상과 의자를 추가로 배치하였다.

관찰 상황

1차년도. 연구에 참여한 아동과 어머니는 자유놀이와 모자 상호작용 상황에서 관찰되었다. 그림 1은 1차 연구의 관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놀이 상황에서는 아동이 장난감을 자유롭게 가지고 노는 동안 어머니가 크게 개입을 하지 않았으며 모자 상호작용에서는 어머니가 아동과 함께 놀이하도록 하였다. 자유놀이를 하는 중간에 연구자의 신호에 따라 모자 상호작용이 시작되었다. 자유놀이는 15분, 모자상호작용은 3-5분정도 진행되었다.

2차년도. 2차년도에 참여한 아동과 어머니들은 자유놀이와 과제 수행 상황에서 관찰되었다. 아동들은 받아쓰기 과제를 먼저 수행하고 난 뒤 10분 정도 주어진 장난감을 가지고 어머니와 자유롭게 놀이하였다. 과제 상황에서는 30자 정도의 문장 견본과 어머니가 만든 문장 4개를 아동이 받아쓰도록 하였다. 어머니는 아동이 받아쓰기를 하는 동안 수행을 돕거나 자유롭게 상호작용 하였다.

받아쓰기를 마치는 데는 대부분 2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모든 아동의 관찰 시간이 동일하였던 1차년도와는 달리 수행시간에 개인차가 있었다. 따



그림 1. 1차년도 관찰 상황



그림 2. 2차년도 관찰 상황

라서 수행시간이 너무 길었던 아동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2는 2차년도의 관찰 상황을 보여준다.

행동 분석 준거와 점수화

각 변인들의 분석 준거는 다음과 같다.

1차년도. 정서표현성을 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적 정서표현성으로 나누어 평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네 가지 기본 정서 중, 기쁨의 표현은 정적 정서표현성으로, 화, 슬픔, 두려움은 부적 정서표현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유 놀이 상황에서 두려움의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맥락상 순수한 슬픔보다는 짜증으로 보이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부적 정서표현성의 경우 화, 슬픔, 짜증, 좌절, 지루함의 표현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정적 정서표현은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하는 웃음, 미소 등의 얼굴 표정과 감탄사, 의성어 등의 언어적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얼굴 표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웃음 소리가 분명한 경우에는 정적 정서표현으로 평정하였으나 비디오의 각도에 따라 웃음인지 아닌지 분명치 않은 것은 정서 표현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였다. 반

면, 부적 정서표현성은 화난 얼굴, 찌푸린 얼굴 표정, “이이잉” 등의 감탄사, “집에 갈래” 등의 언어적 표현, 엄마에게 항의하는 어투나 발을 세게 구르는 행위를 포함하였다. 또한 어떤 정서도 관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립으로 코딩하여 정서 표현이 분명한 것만 고려하려 하였다.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 역시 얼굴표정, 언어적 표현, 행동 표현에 기초하여 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적 정서표현성을 평정하였다. 웃음, 미소, 칭찬의 감탄사 등은 정적 정서표현으로 보았다. 부적 정서표현성은 화와 짜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이를 나무라는 것, 경고하는 어투, 신경질적인 얼굴 표정, 눈을 부릅뜨는 행동 등을 포함한다. 아이에 대한 정서표현 외에 어머니가 자신의 지루함을 혼자 표현하는 경우(예:오래 걸리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개인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차년도.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1차년도와 같은 준거에 의해 평정하였다. 2차년도에는 과제수행에서 아동이 눈물을 글썽이고 양말을 벗어버리는 등의 행동적 표현이 새롭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행동을 어

머니의 의도대로 이끌어가기 위한 행동을 의미한다. 무조건적 명령/지시, 불필요한 지시, 독촉의 세 가지 유형이 주로 관찰되었다. 우선, 무조건적 지시는 “다음에 이거 해, 그리고 이거”하며 아동의 자율적 수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불필요한 지시는 “하지만, 그거 왜 만져”하는 식으로 아동의 행동을 제어하는 것을 말하며 독촉은 “그거 쳐다보지 말고 빨리 해”하며 수행을 재촉하는 행동이다. 2차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부적 정서표현성을 분리된 변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통제적 양육행동은 행위와 의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개인 점수가 높을수록 통제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 것을 의미한다.

점수화. 녹화된 행동은 1, 2차 모두 대학원에서 아동발달을 전공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훈련 받은 2인이 코딩하였다. 타이머에 따라 녹화된 것을 20초 간격의 한 단위로 나누고, 한 단위마다 기쁨, 슬픔, 짜증, 화, 중립이 각각 관찰되었는지 아닌지 평정하였다. 각 정서표현이 나타나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을 주고 전체 단위의 점수를 합하여 개인점수를 구하였다. 기쁨에 대한 개인 점수를 정적 정서표현성으로 보았고, 슬픔, 짜증, 화의 개인 점수를 합하여 부적 정서표현성 점수를 구하였다.

1차년도에는 모든 피험자의 관찰 시간이 거의 동일하였기 때문에 전체 점수를 합하여 개인 점수를 구하였다. 두 코더들은 케이스 전체를 각자 개별적으로 중복코딩 하였으며 코더 간 신뢰도는 모든 변인들에서 kappa가 .93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에는 과제 수행 시간에 개인차가 있었으므로 전체 점수의 합을 소요된 시간의 단위로 나누어 개인점수를 구하였다. 2차년도에는 코더들이 케이스를 절반으로 나누어 각자 개별적으로 코딩하고 20%인 13케이스를 중복코딩 하였다. 이 중복코딩에 대한 kappa는 정서표현성과 통제적 양육

행동에 대해 모두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와 2차년도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후 전체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상관분석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술치 분석에는 SPSS version 12를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은 우선 이론적 배경과 상관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경로분석에서 매개변인에 대한 간접효과는 Bootstrap방식을 사용하여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고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경로분석에는 AMOS 7을 사용하였다.

결 과

기술치 분석 및 상관 분석

1차(Time1)와 2차(Time2) 연구 변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남아, 여아, 전체 아동별로 표 1에 나타나 있다. Time2 변인들의 평균은 각 개인의 전체 합산 점수를 소요시간으로 나눈 것의 평균이다.

표 1을 보면 전반적으로 아동과 어머니 모두 정적 정서를 부적 정서보다 더 많이 표현하였다. 아동의 성에 대한 t검증 결과 Time1의 어머니 부적 정서표현에서 유의한 성차($t=2.16,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를 가진 어머니가 여아를 가진 어머니보다 부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전체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에 따르면 아동의 월령은 Time1($r=-.38$,

표 1. 연구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들	남아 (n=38)		여아 (n=24)		전체 (n=62)	
	M	SD	M	SD	M	SD
[Time1]						
아동정적표현	7.89	5.16	8.42	5.37	8.10	5.21
아동부적표현	3.03	2.71	2.63	2.39	2.87	2.58
어머니정적	1.16	1.33	1.79	1.53	1.40	1.43
어머니부적	.82	1.27	.29	.62	.61	1.09
[Time2]						
아동정적표현	.23	.19	.20	.16	.22	.18
아동부적표현	.02	.07	.01	.02	.02	.06
어머니정적	.08	.06	.09	.07	.08	.06
어머니부적	.01	.01	.00	.02	.01	.02
어머니통제	.06	.06	.04	.05	.05	.05

$p<.01$)과 Time2($r=-.31, p<.05$) 모두에서 어머니의 부적 정서표현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가 부적 정서를 덜 보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Time1에서 아동과 어머니의 부적 정서표현성 간에는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r=.27, p<.05$). Time2에서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정적

정서($r=.52, p<.001$)와 부적 정서($r=.29, p<.05$) 모두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Time2에서 아동($r=.46, p<.001$)과 어머니($r=.73, p<.001$)의 부적 정서표현성은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Time1과 Time2의 아동의 정적 정서표현성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으나 부적 정서표현성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r=.30, p<.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정적($r=.37, p<.01$) 그리고 부적($r=.45, p<.001$) 정서표현성은 Time1과 Time2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1과 2: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의 종단적 연속성

상관분석은 관련성만을 제시할 뿐 인과 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할 때는 회귀나 경로분석 등을 실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1, 2를 분석하는데 따로 추후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 이

표 2. 1, 2차 연구 변인들간의 상관 관계(n=62)

변인	[Time1]					[Time2]			
	1	2	3	4	5	6	7	8	9
[Time 1]									
1.아동의 월령	-								
2.아동 정적 정서표현성	-.09	-							
3.아동 부적 정서표현성	-.04	-.06	-						
4.어머니 정적 정서표현성	-.07	.13	-.06	-					
5.어머니 부적 정서표현성	-.38**	.22+	.27*	.11	-				
[Time 2]									
6.아동 정적 정서표현성	-.07	.19	.05	.14	.10	-			
7.아동 부적 정서표현성	-.24+	.13	.30*	-.01	.42**	-.04	-		
8.어머니 정적 정서표현성	.00	.12	-.01	.37**	.09	.52***	.11	-	
9.어머니 부적 정서표현성	-.31*	.16	.27*	.07	.45***	.26*	.29*	.29*	-
10.어머니 통제적 양육행동	-.23+	.22+	.35**	.04	.43**	.18	.46***	.16	.73***

+ $p<.10$ * $p<.05$ ** $p<.01$ *** $p<.001$

유는 아동의 정서표현성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모두에서 단일 독립변수와 단일 준거변수 간 1:1상관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선형 함수의 상관과 회귀 계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상관계수로 그 영향력이 유의한 것을 나타내게 된다.

우선 연구문제 1에 대해 위의 상관분석 결과는 Time1과 Time2에서 아동의 부적-부적 정서표현성 사이에만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1차년도에 부적 정서를 많이 표현했던 아동이 2차년도에도 부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1차년도의 부적 정서표현성이 2차년도에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부적 정서표현성에 종단적 지속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 정서표현성의 종단적 지속성에 대한 연구문제 2를 살펴보면, 위의 상관분석에서 어머니의 정적-정적 그리고 부적-부적 정서표현성 사이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1차년도에 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 어머니가 2차년도에도 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였으며, 부적정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어머니의 1차년도 정서표현성은 정서의 속성(정적 혹은 부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2차년도 정서표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 정서표현성에

도 지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정적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정적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

Time1과 Time2에서 어머니의 정적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정적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경로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한 결과가 그림 3에 나타나있다. 이 모형은 Time1의 어머니 정적 정서표현성이 Time2의 아동과 어머니 정적 정서표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종단적 경로와 Time2의 어머니 정적 정서표현성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횡단적 경로를 가정하고 있다. 이 경로모형에 대한 Chi-square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GFI=1.00로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을 살펴보면, Time2의 아동의 정적 정서표현성은 Time2의 어머니 정적 정서표현성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55, p<.001$). 그러나 Time1의 어머니 정적 정서표현성은 Time2 아동의 정적 정서표현성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Time2의 어머니 정서표현성을 통해 아동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0, p<.05$).

연구문제 4와 5: 어머니의 부적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부적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과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부적 정서표현성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부적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모형은 Time1의 어머니 부적 정서표현성이 Time2의 아동의 부적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직접, 간접적 경로를 가정하고, 또한 Time2에서 어머니의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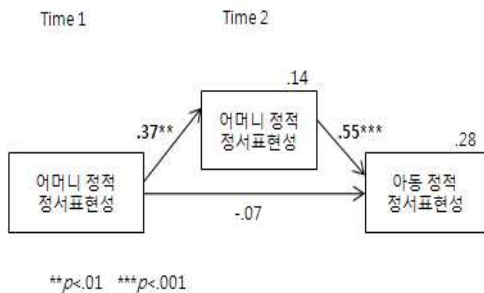


그림 3. 어머니 정적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정적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표준화계수)

적 양육행동이 어머니와 아동간의 정서적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모형 역시 Chi-square=0, GFI가 1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4에 따르면, 어머니 부적 정서표현성의 종단적 연속성이 재확인되었으며($\beta=.45, p<.001$), Time1의 어머니 부적 정서표현성은 Time2의 아동의 부적 정서표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0, p<.05$).

반면, Time2의 어머니의 부적 정서 표현성은 아동의 부적 정서표현성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대신 Time2 어머니의 부적 정서표현성이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며($\beta=.68, p<.001$), 또한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부적 정서표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8, p<.001$). 이에 대한 간접 효과를 알아본 결과 연구문제 5에서 가정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32, p<.05$). 이 외에, 이 모형에서는 그와 다른 간접 효과가 나타났다. Time1의 어머니 부적 정서표현성은 Time2에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었으나 Time2의 어머니 부적 정서

표현성을 통해 통제적 양육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주었다($\beta=.31, p<.05$).

논 의

본 연구는 우선, 기질적 특성으로서 아동의 정서표현성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지 알아보았으며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에도 안정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직접적, 간접적 경로를 알아보았다. 특히,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별로 개별적 경로를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논의된다.

첫째, 아동의 정적 정서표현성은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관련성이 없었으나 부적 정서표현성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1차년도에 부적 정서표현성이 높았던 아동은 일년이 지나도 부적 정서표현성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아동의 부적 정서표현성에 안정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적 정서표현성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수많은 학자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환경과 유전의 상호작용이 정서표현성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뚜렷이 논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서표현성은 신경생리적 반응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높은 각성, 스트레스 호르몬 등 부적 정서와 관련된 생리적 지표가 더욱 현저하다(Fox, et al., 2001). 또한 Goldsmith 등(1999)은 부적 정서보다 정적 정서표현성이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부적 정서표현성보다 정적 정서표현이 더 많은 변화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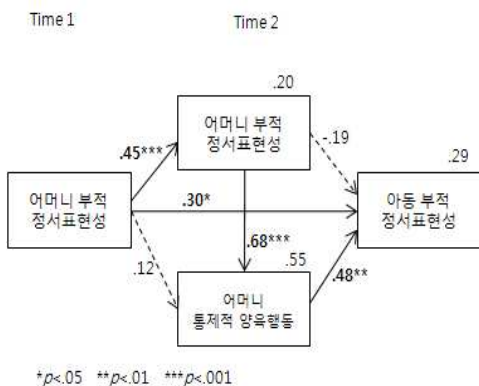


그림 4. 어머니 부적 정서표현성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부적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로분석 (표준화계수)

또한 이 결과는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표현성이 분리된 개별적 영역이라는 Belsky, Hsieh와 Cmic(1996)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정적 정서경험을 하는 경우와 부적 정서경험을 하는 경우에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구분되므로 정적 정서표현성이 발달하는 패턴은 부적 정서표현성이 발달하는 패턴과 구분된다고 하였다.

한편 Izard와 Malatesta(1987)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적 정서표현성의 빈도보다 강도나 표현 형태가 다양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순수한 부적 표현성이 복잡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얼굴 표정뿐 아니라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암시적 표현(예: 양말을 벗어 던지는 행위)을 모두 포함하여 부적 정서표현성을 측정하였으므로 순수한 부적 표현성과 복합적인 부적 표현성을 모두 평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적 정서표현성은 강도와 표현형태가 변화할 뿐 부적 정서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서표현성의 안정성을 다룰 때 과연 어떤 측면이 안정적이고 어떤 측면이 변화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이에 정적, 부적 모두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표현성이 높았던 어머니나 낮았던 어머니 모두 일 년 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표현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과 기질의 차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McCrae와 Costa(1990)의 성격 특성모델은 어머니의 정적 정서표현성을 외향성의 한 속성으로, 또한 불안, 적대감, 우울 등의 부적 정서표현성을 신경증의 한 속성으로 본다. 이러한 특성 모델은 성

격이 아동의 기질보다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부분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질의 유전적 특성이 전생애 동안 지속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청년기 이후부터 노년기까지는 성격의 변화가 크지 않다(McCrae, et al., 1999)

정서표현성이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 모두 학령기 이후 보다 안정적인 속성을 보이게 된다(Durbin, et al., 2007; Sallquist, et al., 2009)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한다. 즉,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성격의 구성요인으로서 정서적 특성에 따라 개별적인 안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정서표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어머니의 정적 정서표현성은 같은 시기의 아동의 정적 정서표현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어머니의 정적 정서표현성에는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이에 안정성이 있었지만 1차년도 어머니의 정적 정서표현성은 2차년도 아동의 정적 정서표현성을 설명하지는 못하여 모자 관련성이 정적 정서에서는 종단적으로 지속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전반적 정서표현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표현성이 높았던 Boyum와 Parke(1995)에서의 결과와 부분 일치한다.

이 결과에는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다. 높은 정서표현성의 유전자를 가진 어머니와 아동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일수도 있고 부모의 얼굴표정과 행동 등의 정서적 표현성을 통해 아동이 정서표현 패턴을 배워나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적 표현성에 대해 아동에게 직접 반응하는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한 경로를 가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론적으로도 상관 분석에서도 큰 관련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정서표현성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모델링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정서반응 때문인지 논의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정적 정서와는 달리 부적 정서표현성에서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직접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해 아동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Time1의 어머니 부적 정서표현성은 Time2의 아동의 부적 정서표현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그 크기는 미비하였다. 실제 아동의 부적 정서표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머니의 부적 정서표현성이 아니라 통제적 양육행동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Feng 등(2007)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어머니의 부적 정서표현성은 매우 일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일반적 표현성은 아동의 정서표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보다 아동이 어떤 정서를 보일 때마다 거기에 반응하는 어머니의 행동이 아동의 정서성과 높은 관련이 있었다. Kochanska와 Aksan(2004)은 각 어머니가 아동의 정서에 반응하는 방식이 아동의 정서적 기질을 긍정에서 부정으로, 혹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기도 한다는 논의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적 정서표현성에서는 통제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가 가장 현저하였으므로 어머니와 아동의 표현성간의 유전적 연결이나 직접적인 모델링을 통한 경로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어머니의 부적 정서표현성이 아동에게 일대일로 반응하는 어머니의 반응행동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아동의 정서표현성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지지하며 일대일 반응이 아동의 부적 정서표현성에 더 강력한 사회적 기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후 연구를 향한 제언을 해보면, 본 연구는 관찰 측정을 기반으로 한 종단 연구로 맥락적 타당

성을 가지는 장점이 있으나 2년에 걸쳐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의 수가 적었다. 경로분석 모형의 최소 조건을 충족하기는 했으나 더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같은 경로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통제적 측면에서만 다루었는데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간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매개하는 효과를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성을 안정적인 기질적 속성으로 보고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일방적 경로만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모자 상호작용은 양방적이므로 아동의 정서표현성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후 녹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간의 상호작용과 그 상호작용의 안정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서표현성의 안정성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신경생리적 지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Belsky, J., Fish, M., & Isabella, R. (1991).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infant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ality: family antecedents and attachment consequ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21-431.
- Belsky, J., Hsieh, k. H., & Crnic, K. (1996). Infant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ity: one dimension or two? *Developmental Psychology, 32*, 289-298.
- Boyum, L. A., & Parke, R. D. (1995). The role of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ocial competence.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593-608.
- Cervantes, C. A., & Callanan, M. A. (1998). Labels and explanations in mother-child emotion talk: age and gender differenti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1), 88-98.
- Durbin, C. E., Hayden, E. P., Klein, D. N., & Olino, T. M. (2007). Stability of laboratory assessed temperamental emotionality traits from ages 3 to 7. *Emotions*, 7(2), 388-399.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 (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 1418-1438.
- Eisenberg, N., Valiente, C., Spinrad, T., Cumberland, A., Liew, J., Reiser, M., Zhou, Q., & Losoya, S. H. (2009). Longitudinal relations of children's effortful control, impulsivity, and negative emotionality to their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co-occurring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45(4), 988-1008.
- Feng, X., Shaw, D. S., Skuban, E. M., & Lane, T. (2007). Emotional exchange in mother-child dyads: stability, mutual influence, and associations with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problem behavior.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4), 714-725.
- Fish, M., Stifter, C. A., & Belsky, J. (1991). Conditions of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infants negative emotionality: newborns to five months. *Child Development*, 62, 1525-1537.
- Fox, N. A., Henderson, H. A., Rubin, K. H., Calkins, S. D., & Schmidt, L. A. (2001).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behavioral inhibition and exuberance: psychophysiological and behavioral influences across the first four years of life. *Child Development*, 72(1), 1-21.
- Goldsmith, H. H., Lemery, K. S., Buss, K. A., & Campos, J. J. (1999). Genetic analyses of focal aspect of infant tempera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5, 972-985.
- Guerin, D. W., & Gottfried, A. W. (1994). Developmental stability and change in parent reports of temperament: a ten year longitudinal investigation from infancy through preadolesc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0, 334-355.
- Halberstadt, A., Cassidy, J., Stifter, C., Parke, R., & Fox, N.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1), 93-103.
- Izard, C. E., & Malatesta, C. A. (1987). Perspectives on emotional development: differential emotions theory of early emotional development. In J. D. Osofsky (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pp.494-554). NY: Wiley.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 (1987). The physiology and psycholog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children. *Child*

- Development*, 58, 1459-1473.
- Kochansk, G. (2001). Emotional development in children with different attachment histories: the first three years. *Child Development*, 72, 474-490.
- Kochanska, G., & Aksan, N. (2004). Development of mutual responsiveness between parents and thei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75, 1657-1676.
- McCrae, R. R., & Costa, P. T. Jr. (1990). *Personality in adulthood*. NY: Guilford Press.
- McCrae, R. R., Costa, P. T. Jr., de Lima, M. P., Simoes, A., Ostendorf, F., Anglietner, A., Marusic, I. Bratko, D., Caprara, G. V., Barbaranelli, C., Chae, J. H., & Piedmont, R. L. (1999). Age differences in personality across the adult life span: parallels in five cultures. *Developmental Psychology*, 35, 466-477.
- Murphy, B. C.,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 Guthrie, I. K. (1999). Consistency and change in children's emotionality and regulation: a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5, 413-444.
-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105-176). NY: Wiley.
- Sarni, C. (1985). Indirect processes in affect socialization. In M. Lewis & C. Saarni (Eds.), *The socialization of emotions*(pp. 187-209). New York: Plenum Press.
- Sallquist, J. V., Eisenberg, N., Zhou, Q., Liew, J., & Eggum, N. (2009).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ity: trajectories across six years and relations with social competence. *Emotion*, 9(1), 15-28.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runner-Mazel.
- Zeman, J., & Shipman, K. (1996). Children's expression of negative affect: reasons and methods. *Developmental Psychology*, 32(5), 842-849.
-

1차 원고 접수: 2010. 04. 13

수정 원고 접수: 2010. 05. 14

최종 게재 결정: 2010. 05. 15

A Longitudinal Study of Continuities and Changes in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Mothers' Influence on Children's Expressiveness

Ha-Na Song

Kyoung-Sok Choi

Dep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Child Psychology &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and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Maternal influence on children's expressiveness, and mediation effect of mothers' overcontrolling behaviors were also examined. Sixty two children and their mothers were observed in a free play, a mother-child interaction, and a task settings at their age 5(time1) and 6(time2). Children's and mothers' behaviors were videotaped and rated by two coders in terms of positive and negative expressiveness. Results showed that children's negative expressiveness at time 1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ose at time 2. Mother expressiveness at time 1 and time 2 was also correlated with each of emotions. In addition, mothers' positive expressiveness directly affected children's positive expressiveness, but mothers' negative expressiveness was not directly associated with children's negative expressiveness. Rather, mothers' overcontrolling behavior mediated the relations between mothers and children's negative expressiveness. Discussion included continuities in emotional temperament and the paths of socialization of emotion by mothers through modeling and direct reactions.

Keywords: emotion, expression, temperament, continuity, over-controlling behaviors.